

고향뜨락 농·특산물 판촉행사

무주군, 3월 5일까지 서울 영등포역·용산역서 200여개 품목 전시·판매

‘건강가득 소득농업’ 실현에 매진하고 있는 무주군이 오는 3월 5일까지 서울 영등포역과 용산역에서 코레일유통(주)과 함께 하는 ‘고향뜨락 농·특산물 홍보 판촉행사’를 진행한다



무주군이 오는 3월 5일까지 서울 영등포역과 용산역에서 코레일유통(주)과 함께 하는 ‘고향뜨락 농·특산물 홍보 판촉행사’를 진행한다.

지난달 20일부터 시작된 판촉행사에서는 천마와 사과, 머루와인, 옥수수, 도라지청 등 무주군 관내 40개 업체에서 생산한 200여 개 품목이 전시·판매 중으로 시음과 시식, 나눔 행사도 별도로 진행해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 준수를 위해 홍보 및 판매를 전문기관에 위탁, 각 판매장에는 손 소독제 등 방역용품 비치해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무주군청 농촌활력 및 김영종 과장은 “고객들의 편의를 생각해 영등포역과 용산역에서 모두 소포장과 택배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며 “맛과 품질, 가격, 서비스 모든 면에서 만족을 더해 반딧불 농·특산물을 못 먹어본 사람은 있어야 한 번만 먹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무주군은 반딧불 농·특산물의 인지도를 높이며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

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킨다는 취지에서 지난해 6월 코레일유통(주)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9월 코레일유통(주) ‘고향뜨락’ 영등포 매장에 196개 품목의 반딧불 농·특산물 홍보·판촉전을 마련해 1

억여원의 판매 수익을 올린 바 있어 이번 행사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반딧불 농·특산물 전시·판매 대책을 수립한 무주군은 반딧불사이버장터를 비롯한 우체국쇼핑몰 전용관(무주반딧불장터) 등 운영에 집중(일점 농가 택배비 지원 1인 300만원)하고 온라인 판로 확보에 더욱 주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국가예산 확보 총력 대응

2022~2023년 추진상황·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발굴 보고회 개최

진안군은 9일 군청 상황실에서 나혜수 부군수 주재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2022~2023년 국가예산 추진상황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서는 ▲주민생활 통합지원 시스템구축 ▲청년주거 안정을 위한 행복주택 건립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 ▲고려홍삼 진안고원 글로벌센터 구축사업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등 52개 사업(총사업비 2,830억원)의 추진계획과 논리 개발, 향후 국가예산 확보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또한 이날 보고회에서는 국가예산 뿐 아니라 복합생활문화센터건립 및 주차장 조성사업 등 내년도 균특회계 사업으로 총 9건, 72억원을 발굴·보고도 이뤄져 향후 진안군 역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군에 따르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지난해 8월부터 2022~2023년도 국가예산 신규 사업 발굴을 하고, 전 부서가 정부 및 전북도 재정투자 방향과 정책동향 파악에 적극 나서는 등 주요 정책 사업을 비롯한 군민의 행정 수요와 현안 해결을 위한 맞춤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왔다.

나혜수 부군수는 “사업별 국가예산 확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경 운영 방향과 부처별 주요업무계획을 사전에 파악하고 전라북도 담당부서와 중앙부처 방문, 정치권 공조 등 가용한 수단을 활용하여 적극 대응해줄 것”을 주문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설 명절 성수품 물가안정 대책 추진

무주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인상이 예상되는 성수품 16개 주요 품목에 대한 물가안정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8일부터 14일까지 기간을 ‘설 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판매가격과 단위가격 표

시여부 등에 대해 중점 지도·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군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 군은 사과, 배 등 농축산물과 임산물, 수산물 16개 성수품에 대한 가격 인상요인과 원산지 표시 이행 여

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며 이·미용료 등 개인 서비스 요금도 중점관리 대상품목으로 정하고 가격동향을 점검해 불공정 거래를 중점 살핀다.

또 무주터미널을 비롯해 무주 반딧불시장 일원과 마트 등지에서 부당한 가격인상 자제, 검소하고 알뜰한 차례상 차리기 등을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설 연휴 종합대책 추진

7개 분야 종합대책반 구성·긴급 상황 등 적극 대비

진안군은 9일 설 명절을 맞이하여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설 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11일부터 14일까지 지역경제 활성화, 소외계층 지원, 물가대책, 교통안전, 보건·위생·환경관리, 재해·재난·안전 등 7개 분야로 종합대책반을 구성하여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로 긴급 상황에 대비하고 군민 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연휴기간동안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군민들에게 타 지역

이동 자제와 방역수칙 준수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연휴에 발생한 환자들의 응급진료에 불편이 없도록 응급 의료기관(진안군의료원)과 당지의료기관 3개소와 당번약국 5개소를 지정 운영한다.

전춘성 군수는 “코로나19를 조속히 극복하고 예전의 평범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타지에 거주하는 가족과 만남을 미루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며 “종합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해 군민이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본격 가동

장수군은 봄철 산불 조심기간에 맞춰 2021년도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본격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장수군은 오는 6월 10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진화인력 82명(군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38명, 읍면산불감시원 44명)을 투입해 산불 방지 체제에 돌입한다.

산발을 통해 조지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및 감시원은 이 기간 동안 산불 취약지를 대상으로 소각금지 계도와 농산부산물 파쇄지연, 산발진화 및 뒷불감시, 산지정화 등 각종 산림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장수군은 주요 등산로 입구와 산발취약지 점검을 통해 산불을 미연에 방지하고 산발발생 진화초기에 산발진화 헬기를 지원하도록 익산산림항공관리소 및 전북도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문민섭 산림과장은 “산발 발생의 주요원인 중 하나는 산림연접지역에서 논밭두렁 소각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산발 예방으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통

무주군, 설 명절 맞아 411세대 288곳 위문 예정

무주군이 나눔과 돌봄으로 훈훈한 설 명절 보내기에 나섰다.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과 외로운 주민들, 그리고 연휴기간 고생하는 기관들을 살피는 취지로 10일까지 411세대 288곳을 위문할 예정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지난 8일 반딧불기관장회 회원들과 함께 군부대를 비롯한 경찰서와 119 안전센터, 평화요양원, 하은의 집 등지를 찾아 근무자들과 입소자들을 격려했다.

군 장병들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집 생각, 부모님 생각 간절했는데 여러분들이 오셔서 다독여주시니 든든한 마음”이라며 “코로나19가 빨리 잡혀서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무주군청 실·과·소·읍·면장들은 무의탁 독거노인 25세대를 찾아 생활불편 사항을 살피고,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격려했다. 이외에도 마을담당관(마을 1담당 공무원)들이 6개 읍·면 경로당 269곳과 저소득 취약계층 367세대를 방문해 설 선물을 전하고 풍파 등 시설안전점검도 진행 중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노인회 무주군지회 “재능나눔활동지원 참여하세요”

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지회장 이광부)는 2021년 노인재능나눔활동지원 사업 참여자를 오는 15일부터 25일까지 공개모집 한다.

노인재능나눔지원 사업은 만 60세 이상(61년 2월 15일 이전 출생자) 재능을 보유한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활동기회를 부여하여 사회참여를 통한 노후성취감 제고, 건강 및 대인관계 개선을 유도하고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된다.

지원활동 모집은 상담 안내(40명), 학습지도(문해 교육 40명) 활동유형으로 총 80명이다. 참여활동 시간은 월 5회 10시간 이하로 1회당 2시간에 10만원 이내의 8개월간 활동비를 지원하며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및 마을회관, 교회, 공공시설 등에서 활동을 하게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설 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방문

진안군은 민속 고유의 명절 설을 맞이하여 전춘성 군수와 전 공직자가 나서 소외 계층을 위한 위문 방문이 이어졌다.

군은 9일 전춘성 군수 및 부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관내 사회복지시설 15개소를 대상으로 코로나 방역수칙 홍보와 함께 위문품을 전달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 위문활동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따라 입소자 면회와 외출이 제한되어 입소자 및 종사자들의 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상태로 힘든 여건 속에서도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는 시설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하고, 방역수칙 준수에 더욱더 힘써 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 공직자들도 독거노인 및 저소득 가정과 1:1 결연을 맺고, 해당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명절 인사와 위문품을 전했으며, 멀리 살고 있는 자녀와 영상통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 드



리는 서비스도 실시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올해 설 명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느 때보다 가족들이 그리운 명절이 될 것 같지만 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안전한 진안이 될 수 있도록 군민 모두가 노력해 달라”며 “힘든 시기 일수록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따뜻한 진안군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